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현장밀착형 행정

권익현 부안군수는 9일 하서농협 오디 수매현장과 상서면 불가사리 액비 자원회시시설 방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밀착형 적극 행정을 실시했다.

하서농협은 지난 3월부터 계획물량 10톤 규모로 오디 수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농가에서 5톤을 수매했다.

특히 올해 오디 수매는 하서농협과 동진주조 등 6곳에서 90톤 가량을 수매할 계획으로 오디재배농가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 생산된 오디는 초기에 병해를 입었지만 수확기에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별을 잘해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해수욕장협의회  
7월 11일 개장관련 논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장기간 등 해수욕장 주요 운영·관리사항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권익현 군수 주재하에 부안경찰서와 부안해양경찰서, 부안소방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구조대, 변산지역발전협의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는 우선, 코로나 19 방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과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전담요원 10명을 선발, 배치하는 한편 장마철과 이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장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37일간으로, 개장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안전한 여름나기' 팔걸어

정읍시, 올여름 폭염 선제적 대응 종합대책 마련  
그늘막 · 무더위쉼터 운영, 특보 시 얼음 비치 등

정읍시는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 극복을 통한 안전한 여름나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그늘막 설치와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시는 도시안전국장 총괄 아래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 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총 12명 3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TF'팀을 운영한다.

폭염TF팀 운영으로 폭염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

하고 조치사항을 전파하는 등 종합 상황판에 들어간다. 또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그늘막(온도 15°C 이상, 풍속 7m/s 이하 가동)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2개소 스마트그늘막 27개소, 접이식 그늘막 5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냉방기기가 구비된 무더위쉼터 344개소를 지정 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무더위쉼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

한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등 더위는 물론 코로나19 감염 위험까지 줄인다.

폭염 특보 시에는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 살수차 가동과 버스정류장에 얼음을 비치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없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또 폭염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고, 홍보 물품을 제작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배부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폭염 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폭염 대비 건강수칙 준수 등 개인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시민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10일 오전 11시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군 생내면의 한 논에서 열린 '토종 벼씨를 사용한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손 모내기를 함께했다.

## 고창군, 토종벼 모내기 행사 '울력'

고창군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위한 첫 단계인 토종 종자 육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군 생내면의 한 논에서 열린 토종 벼씨를 사용한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손 모내기를 함께했다.

행사는 논살림연합회에서 초청된 강사의 토종 벼 특성·재배교육과 토종 벼 손모내기 순서로 진행됐다.

모내기 행사는 '사람살려 고창토종벼'가 그간 수집해온 28가지 토종벼 중 9가지(붉은메, 흰메, 장까비, 신대미, 노인도, 충북흑미, 폐

지찰, 녹토미, 자광도)를 이앙기가 아닌 손 모내기를 했다.

고창토종벼연구회 김남수 회장(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은 "토종벼씨는 수천 년 전부터 전통 농사의 방식으로 우리 땅에서 살아남아 온 종자이기에, 육종된 종자와 같이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관행 농업으로 키운 벼에 비해 생산량이 다소 줄 수 있지만 그 대신 희소성이 있는 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출고가 기준으로 일반적인 벼품종의 두세 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내기 행사는 '사람살려 고창토종벼'가 그간 수집해온 28가지 토종벼 중 9가지(붉은메, 흰메, 장까비, 신대미, 노인도, 충북흑미, 폐

지찰, 녹토미, 자광도)를 이앙기가 아닌 손 모내기를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 도주 치상 피의자 검거 기여

### 사고 차량 이동 경로 경찰 제보

정읍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도주 치상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덕천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앞 노상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인 보행자 조종 의자차를 추돌해 인적(중상 6주),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통합관제센터 황선탁 요원은 지역에 설치된 차량번호 식별용 및 방범용 CCTV를 정밀 분석해 사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으로 정읍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도주 치상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920대를 관제 요원 9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절도와 폭력 등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안전 저해 요소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단풍 고장 이미지 강화 주력

### 단풍나무 수간 보호 작업 실시

정읍시가 단풍의 고장 이미지 강화를 위해 시목(市木)인 단풍나무 가꾸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단풍나무의 생육 여건을 개선하고 벌대임 피해 대비 단풍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밝혔다.

단풍나무는 어릴 때는 음수였다가

성장하면서 양수로 변하는 수종으로, 다른 나무와 달리 수피가 약한 대표적 수종이다. 특히, 수액 이동이 시작할 무렵부터 벌대임 피해가 심하고 수세 약화와 병해충으로 인한 생육 저하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노선 181.6km 내 10여 종 3만여 본의 가로수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단풍나무에 대해 녹

화마대를 이용한 수간 보호 작업을 실시한다. 천변로를 시작으로 호남고과영창아파트, 정읍천 자전거도로와 수성택지지구 일원 등 주요 노선 25.7km 내 3,211본이 대상이다. 작업 과정은 벌대임 피해가 심해 가지까지 확산된 병해충 피해 부위에 대한 제거를 시작으로 살균·살충 처리, 방부 및 상처 보호제를 활용한 도포 처리를 시행한다. 이어 천연재료를 활용한 수간 등 처리부를 감싸는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민 더 건강해졌다"

### 정읍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금연·절주·걷기 등 실천

정읍 지역 성인들이 지난 1년 사이 흡연과 음주는 줄이고 걷기는 늘리는 등 건강 행태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읍시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478가구 805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통계'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시는 2008년 이후 지역 보건요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속조사와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걷기실천율은 58.1%로 전년도에 비해 24.3% 증가했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48.0%로 전 조사년도에 비해 24.6% 증가했다. 이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의

걷기 좋은 환경조성과 보건소의 건강 생활 실천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42.0%로 전년도(18년) 18.0%에 비해 24.0% 증가했다. 전곡 42.8%에 비슷한 수준으로 정읍시의 효과적인 금연사업과 사회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음주율은 45.3%로 전년도에 비해 0.9%p 감소했고, 전라북도 50.4%와 전국 54.0%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문화 개선과 고위험 음주율을 더 낮추기 위해 절주 캠페인과 보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별과 지역별 건강 형태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건강 행복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